

# 미래아이콘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미표기

"이건 네가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 끝을 봐야 해. 알았지?"

부모님께선 필요에 의한 학습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하나, 과외 하나 없이 16년 학창시절을 보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 학습하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책임질 것을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 성적표엔 남들과 비슷한 성적을 가졌지만 자립심,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런 성향은 고등학교 이후 빛을 발해 상위권을 다룰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가진 직장에서도 역시 작은 일에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사에 입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느리더라도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장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좋아?"

공연 예매날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평소엔 똑부러지고 연예인이라곤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가 공연날만 다가오면 갑자기 10대 소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고들 합니다. 이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티켓값보다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는 절 두고 친구들은 그 열정이 부럽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제 생활 신조중 하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일을 할 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놀 땐 다 던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놀자는 원칙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은 집안의 첫째로 살다 보니 감정 표현 하나에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조금씩 솔직해지려 노력하고 있고, 남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아이콘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가족같은 분위기였습니다. 3년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곳과의 '합'이었습니다. 아무리 편한 일이라도 함께 하는 사람과 맞지 않으면 힘들 수 있음을 느끼기도 했고, 힘든 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즐거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업무를 3년째 맡으면서 운영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상담, 회계 업무 등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연초에 짜는 1년 동안의 운영 계획부터 예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학창시절 가볍게 참여했던 일들 뒤에 많은 어른들이 발로 뛰고 있었음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관련 전공자는 아니지만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의 파급력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늘 비전 없이 제자리인 이 곳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이 곳은 좁지만 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미래아이콘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스펀지처럼 빠른 흡수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미래아이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작년 관람한 한 공연에서 아티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공해 주세요' 당당하게 미쳐 즐길 수 있는 팬이 되기 위해 제 열정을 쏟을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